

## Coleridge의 想像力說에 관해서

李 景 植\*

코올리지의 상상력 사상은 인간자아의 자각에 수반되는 독창적 창조정신에서 유래된 것이었으며, 기독교 신학에서 주장하는 신의 창조정신, 즉 중세 신학자들이 즐겨 사용했던 'creatio ex nihilo' 정신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한 바 있었다.

그리고 Coleridge의 철학적 사상의 기반은 I AM으로 대표되는 절대自我的 개념에 있다고 본다. 즉 이것은 상상력 사상내지는 상상력설이 갖는 최고의 이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Coleridge는 일원론적 유심론의 입장에서 있으며 주관적 관념론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다. Coleridge의 체계는 다양한 철학자의 사상을 거쳐서 완성된 것인데 그 분류는 Plato-Plotinus-Bruno-Kant-Coleridge로 이어지는 선상에 있다. 인식론의 중심은 Plotinus의 nous적인 성격을 지닌 직관적 이성에 의한 선험적 인식으로 되어있으며, 여기에 관념론 철학이 융합되어 있다. Coleridge의 말을 빌리자면 그러한 체계는 "정신에서 감각을 창출하는 것이며, Locke처럼 감각에서 정신을 창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한 Coleridge의 전 사상체계는 요한복음 제1장의 첫부분에 나타나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점과 Logos를 같은 지적능력으로 생각하고, 동시에 Creator이며 Evolver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따라서 Logos의 개념은 전체를 파악하는 지성이며 신이라고 생각했다. 즉 'Eolian Harp'에서 노래 불려진 nous인 생명 그 자체로서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필자는 Coleridge의 상상력설을 연구 검토하는 가운데 놀라운 인식에 도달하게 되었다. 즉 그것은 이성과 상상력이 융합된 것이 바로 종교철학의 원리였다는 사실이다. 또한 Coleridge는 창조신의 정신의 본질을 최고 이성이라 부르고, 그것이 발동하게 될 때 <생산적 로고스>가 되는 것과 대응하여, 신을 본따서 만들어진 인간의 마음은 순수이성이라 할 수 있으며, 그 본질은 <形成的 形式(forma formans)>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본질을 따라 인간의 이성이 발동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인간이 生産的 로고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 상상력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상력으로부터 -- 이성으로부터라고 하여도 좋을 것이다. -- 생겨나는 것이 觀念이다. 따라서 관념은 생명을 가지고 마음 -- 知性이라하여도 좋다 -- 으로부터 추출된 살아있는 존재이므로, 그 자체의 생명의 유지와 전

---

\* 人文大學 英語英文學科 教授

개에 필요한 기관을 지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기관으로서 Coleridge는 <말>을 생각했다는 것을 필자는 발견한 것이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이시니라.  
(요한복음 1:1)

두 말할 나위도 없이, Coleridge의 수사상의 체계가 위의 요한복음 제1장의 첫머리의 말씀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 그의 言語發生論의 본질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아구런 주저없이 이 <말씀>을 <知性(Intelligence)>으로 바꾸어 놓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聖요한은 이렇게 단언하고 있다. 즉 태초에 지성이 있었다. 이 지성은 神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神과 함께 있었다. 이 지성이야말로 神자신이였다. 만물은 이 지성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며, 이 지성 없이는 피조물 어느 하나도 창조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Coleridge가 <말씀>을 <지성>으로 바꾸어 놓은 근거는, 그에게 있어서 <말씀>과 <로고스>와 <지성>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Coleridge에게 로고스에 대하여 묻는다는 것은 지성, 곧 마음(mind)의 본질과 기능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상상력을 신적 존재 없이는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신적 존재와의 정신적 교류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가 또 다음과 같은 강의를 한 것으로 보아 그의 로고스론의 본질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상상력이란 가장 고귀한 선물은 결과 속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는 힘이다. 그것이 창조주의 모든 작품에 적용될 때, 영혼을 드높이게 되며, 온갖 기쁨으로 하여금 영혼을 거의 독점하게 되는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들은 신을 도처에서 발견한다. — 우주는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이 쓴 언어이다.

결국 Coleridge는, 상상력을 칸트적인 순수이성이나 실천이성의 상위에 놓지 않으면 안되었으므로 상상력이란 단순히 인간의 기능적인 힘이라고만 할 수는 없으며, 인간의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 즉 신적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신적 존재는 Coleridge에게 있어서는, 최대한으로 드높여진 自我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신적 존재가 지니고 있는 이성은 절대이성 혹은 최고이성(Supreme Reason)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통상적인 인간의 이성과는 그 질에 있어서 다르다. 그러므로 여기에 있어서, 상상력이라는 개념이 신적 존재만이 갖는 능력인가 아니면 통상적인 인간도 가지고 있는 능력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상상력이라는 것이 신적 존재자만이 갖는 능력이라면, 인간은 상상력을 갖지 않는 것이 된다. 그리고 상상력을 인간만이 소유하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신적 존재는 더 한층 상위의 상상력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Coleridge는 상상력을 신적 존재의 능력이라 일컬으며, 제1의 상상력을 신적 존재의 상상력이라 일컬고, 제2의 상상력을 신적 존재를 지향하는 인간의 능력으로 일컬었던 것이다. 그리고 제1의

상상력은 이론적인 반면, 실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 하였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의 살아가는 힘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무한한 〈절대의 자아〉에 있어서의 영원한 창조활동을 유한한 마음속에서 되풀이하는 제1의 상상력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역시 사변적인 존재인 동시에 실천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결국 본 논문에서 필자가 규명한 바는, Coleridge가 상상력에 확고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떻게 철학적 구성을 시도하였는가 라는 점이었다. Coleridge의 체제는 다른 여러가지 철학체계와 모순됨이 없이 지식을 조화롭게 구성하려는 시도였음을 밝혀두었다. 그의 상상력설은 비단 인식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웅대한 構成 哲學을 위한 능동적 힘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 되고 있다.